



풍경소리 하나 없이 연등 몇개 걸린 인법당, 작은 선방, 허리굽은 석탑, 산새 지나간 산신각. 경허 선사의 보림처 서산 천장암의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풍경이다.

5월의 신록·바람·산새도 연등 되었네

서산 연암산 천장암(天藏菴)



대중이 선방에서 정성껏 초파일 연등을 만들고 있다.

연등이 걸려있다.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음이다. 가파른 산길 위로 범당 지붕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풍경(風景)소리 하나 없다. 연등 몇 개 걸린 인법당 하나, 작은 선방 하나, 몇 걸음 안 되는 마당 하나, 허리 굽은 석탑 하나, 마침 지나가는 산새 하나, 산새 지나간 자리에 산신각 하나, 연암산 천장암(주지 허정)이다. 633년(백제 무왕 3)에 담화 선사가 세웠다. 선방 쪽에서 인기척이 있어 다가갔다. “60개만 만들면 돼요.” 대중 다섯이 연등을 만들며 초파일을 준비하고 있다. 조촐하다. 방 한쪽에 붉은 연등들이 쌓여 있다.

“저는 천장암 신도는 아니에요. 수원에서 왔어요.”

본묘월(60) 불자는 공양주의 부탁을 받고 왔다. 손끝엔 붉은 풀물이 진하게 들었다. 공양주는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 절을 찾았다가 공양주가 됐다. 나머지 두 사람도 천장암 신도가 아니다. “저희는 본묘월님 따라왔어요.” 붉은 손으로 하얀 찻잔을 건네는 ‘경’자 ‘안’자 스님도 천장암에 오신지 3일 밖에 안 됐다. 주지 스님은 안 계셨다. “서울 홍무월에 가셨습니까. 지금 서울 쪽이 많이 어수선하죠?” 경안 스님이 서울서 온 기자에게 물음표 없이 물었다. 경안 스님의 ‘서울 쪽’이란 말이 ‘이쪽’과 ‘저쪽’을 선명하게 가르는 것 같았다. 그랬다. 산문 밖은 도박을 했다. 스님들 이야기로 시끄럽다. 연일 이어지는 언론의 보도로 한국 불교 종단 중에 가장 큰 종단이 힘들어지고, 한국의 불교와 스님들이 함께 힘들어진 상황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이 불교를 생각해야 돼요. 모든 스님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불교’가 욕먹는 건 안 돼요.” 본묘월님을 따라 왔다는 두 불자가 꽃잎을 붙이며 입을 모았다. “경허(鏡虛:1849~1912) 스님이 쓰시던 방 보셨어요?” 경안 스님이 화제를 돌렸다. 그렇다. 천장암은 ‘경허’의 도량이고, ‘경허’가 천장암의 역사다. 천장암은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량이지만 그 천년을 채워줄 만한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다. ‘경허’ 이후의 흔적이 그 천장암의 역사를 채우고 있다.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견성할 후 보림처로 삼은 곳

이 천장암이다. 당시 스님이 1년 3개월 동안 정좌불와를 했던 방이 살아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방이다. 들어가 앉아 보았다. 문을 닫고 앉으니 시간이 달린 듯 했다. 아니 시간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었다. 스님이 왜 이토록 작은 방을 택했는지 알 것도 같았다. ‘나’ 외에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었다. 벽에 걸린 스님의 진영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스님의 진영이었지만 스님의 방에서 보는 진영은 명춘시계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스님은 이 작은 방에서

경허 선사 시비·생사 끊은 구도본향 5명이 만든 봉축 등 60개 도량 장엄 어수선한 ‘이쪽’ 밝혀줄 ‘저쪽’ 등공양

모든 시비(是非)를 끊었고, 염정(染淨)을 끊었고, 생사(生死)를 끊었고, 승속(僧俗)을 끊었다. 이토록 작은 방에서 그토록 걸림 없는 생각과 커다란 실천이 나왔다고 생각하니, 스님의 방은 결코 작은 방이 아니었다. 스님으로 인해 한국의 선불교가 다시 일어났고, 수월·혜월·만공으로 이어진 계보는 한국불교를 풍성하게 했다. 그토록 의미 있는 불사와 역사가 이 작은방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방문을 열었다. 짙어가는 신록이 바람을 실어왔다.

선방엔 붉은 연등이 하나 둘 쌓여가고 있었다. “많이 하셨어요?”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등은 정성이예요.” 본묘월님의 손가락엔 이제 붉은 풀물이 제대로 들어 있었다. 천장암엔 신도회장도 없고, ‘큰손’이라 불리는 ‘보살’이나 ‘거사’도 없었다. 신도 아닌 신도 몇이 붉은 꽃잎을 하나하나 붙여가며 등을 만들고 있었다.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다. 천국의 크고 작은 사찰에서 아귀부처님 맛을 준비로 여념이 없다. 도심의 큰 길마다 연등이 걸리고, 큰 사찰의 마당엔 연등을 거는 불자들이 부쩍이고 있다. 천장암은 ‘경허’라는 커다란 이름과 많은 선지식이 거쳐간 유서 깊은 도량임에도 사람들의 발길은 적었다. 대중 다섯이 만들어 올리는 등 60개가 전부인 도량이다. 기자가 조금 안타까워하자, 경안 스님은 이대로 좋다고 했다. 조금 초라해 보이고 명성에 걸맞지 않아 보이지만 적막한 절은 적막한 채로 두어도 좋다고 했다. 그랬다. 경안 스님의 천장암은 확실한 ‘저쪽’이었다. 어지러운 사바의 저편에 꼭 있어야 할 ‘저쪽’이었다. 흠뻑물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저쪽’은 있어야 하고, 천장암은 그런 자리 중 하나였다.

4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참 좋은 날이다. 그 날 하루만이 아니라 중생들에겐 모든 날이 부처님오신 날이다. 부처님은 ‘오고감’ 없이 늘 우리 곁에 계심을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천장암의 풍경이 말하고 있었다. 그 옛날, 난타(難陀)가 어렵게 만들어 부

처님께 올린 등은 모든 등이 꺼진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초파일 범회편 ‘천장암 난타’가 만들어 올린 60개의 붉은 등이 도량을 장엄할 것이다. 천국의 연등이 다 꺼져도 천장암의 연등은 꺼지지 않을 것 같다. 사바는 언제나 어지럽고 험거운 곳이었고, 중생들은 늘 ‘지금’이 가장 힘들다. 모든 등이 천장암의 등과 함께 어수선해진 세상 구석구석을 밝혀주길 서원하며 천장암을 나섰다. 서산 천장암=박재완 기자



경허 스님이 1년 3개월 동안 정좌불와하며 머물던 방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시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2005년 부터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5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 (34세대)를 건립하게 되어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흥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
- | 세대수 34세대 : 10평-6세대, 12평-6세대, 13평-5세대, 21평-6세대, 23평-6세대, 36평-1세대(옥상 선방건립(달마선원 30평) 예정)
-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원
-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 완공예정일 : 2012년 5월 30일 | 입주예정일 : 2012년 6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지 휴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